



‘포럼 문화와 도서관’ 을 만나다

지난 6월 2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도서관계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포럼 문화와 도서관’은 선거일 즈음하여 도서관 관련 공약을 조사·분석하여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도서관문화>> 편집팀은 ‘포럼 문화와 도서관’에 이번 선거 공약의 조사·분석 결과와 그 활용 측면에 대해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진행 : 심효정 · 최정화, 사진 : ‘포럼 문화와 도서관’

■ ‘포럼 문화와 도서관’을 2008년도에 발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포럼을 발족하시게 된 동기와 사업 및 활동내용, 조직 및 회원구성 등 포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포럼 문화와 도서관’은 2008년 3월 1일에 발족되었습니다.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된

동기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신설, 작은도서관 및 독서운동의 사회적 이슈로의 부상 등과 같은 당시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도서관계의 현실인식을 돕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포럼 문화와 도서관’의 궁극적인 취지는 “도서관에 대한 담론 형성 및 도서관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과 의견의 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사업은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옹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론조성 등을 목표로 한 이슈의 제기 등 주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활동에 맞춰져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저희의 가장 큰 사업 내용이 될 것이라



▲ ‘포럼 문화와 도서관’ 서혜란 대표

고 생각합니다. 또, 일반인과 저희 도서관 종사자들에게 ‘도서관이란 무엇인가?’, ‘도서관은 왜 존재하며,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와 같이 아주 근본적이지만 공개적인 담론형성은 부족했던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고 이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내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고, 이런 기본적인 활동을 공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 등도 사업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인등록이 진행 중인데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인 만큼 조직은 이사회와 총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고 ‘포럼 문화와 도서관’의 구성원들이 도서관·출판·언론 등의 배경을 가진 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영역을 기초로 한 분과들을 조직해서 ‘도서관’이라는 문제를 다각도로 조망하고 관련된 분야들과 네트워크로 엮어내는 작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원의 경우,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특별회원의 경우 저희 모임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기관 혹은 개인으로 주로 후원회원들이 이에 속하고, 정회원은 포럼의 모든 행사, 업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회원들이 속합니다. 준회원의 경우 포럼의 활동에는 참여하지만 아직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국도서관협회도 2006년 5.31 지방선거 정책 제안서를 제작하여 전국 도서관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움직이는 도서관계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행은 제대로 해 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포럼 문화와 도서관’에서는 6.2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하여 선거 공약을 조사·분석하셨는데, 이를 추진하게 된 취지와 방법 및 과정이 궁금합니다.

》》》 6.2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 조사·분석 이전에 ‘포럼 문화와도서관’에서도 2006년 국회의원선거 공약 조사·분석을 진행했었고,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 조사의 밑거름이 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

문화와 ^{포럼} 도서관

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훨씬 더 실제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듯 도서관은 아직 중요한 이슈가 될 만큼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번 조사 결과에서 혹은 일부 공표된 공약에서 알 수 있듯 예전에 비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나 복지문제처럼 일반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는 분야와는 달리,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행정을 꾸준히 감시하는 활동은 많이 부족합니다. ‘포럼 문화와 도서관’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도서관이야말로 말로 요즘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복지기관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IT기술과 그에 따른 정보 콘텐츠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도서관이야말로 정보격차를 동반하는 사회격차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중간 완충 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이 현재까지는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럼에서 특히 지방선거 공약 조사·분석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에 속하는 것이고, 직접 지방행정을 진두지휘하는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역으로 이런 활동을 도서관계 여러분에게 알리고 공유하면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정책의 방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도서관계의 정치력을 확장해보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시듯 정책과 정치력이라는 건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미 많은 도서관 관련 정책들이 도서관계가 아닌 다른 곳의 정치력에 의해 좌우되는 사례도 있었고, 그로 인해 도서관의 기본 기능과 역할이 오도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도서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우리 스스로가 제시하고 감시하는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활동을 일단은 포럼에서 시작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약 조사·분석 방법은 이미 ‘포럼 문화와 도서관’ 블로그(www.libraryforum.kr)에 올렸듯 출마한 후보들의 명단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자료를 통해 확보하고, 연락처를 파악해서 선거사무실과 직접 통화한 후 도서관 관련 공약에 대한 설문을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수집한 후 우리 회원들이 직접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했었는데 많지는 않았지만 지역별로 참여해서 공약수집을 위한 후보자 연락처를 조사하는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을 조사·분석한 결과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공약 내용 중 기억에 남는 공약이 있으신지요. 또한 특이할만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선거 공약 조사·분석 결과는 이미 우리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공약이 입수되는 순간부터 입수된 후보자별 공약을 게재했고, 이후에는 지역별로 각 후보의 공약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짧은 의견을 시리즈로 게재해서 올렸습니다.



▲ ‘포럼 문화와 도서관’ 블로그

일단, 공약회신율은 생각처럼 높지는 않았습니
다. 우리가 조사한 대상이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입후보한 후보들이었는
데, 그 중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거나 응답을
거부한 후보 등을 제외하고 총 744명의 후보에
게 설문지를 배포해서 68명의 후보에게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지방선
거 공약의 특징은 대부분의 후보가 인프라 확충
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는 것이고, 그 중 대
부분이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같은 형태로 집
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명칭도 미니도서관,
동네 작은도서관, 아파트 작은도서관, 학교마을
도서관 등 다양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도서관들
에는 보육, 학습 등의 부대기능을 조합한 내용
들이 많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사실 우리
도서관계 종사자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많
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약을 낸 후보자들이 생각
하는 '작은도서관' 과 우리 종사자들이 생각하
는 '작은도서관' 에 대한 인식차이도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꾸어 생각해보면 도서관의 기
본 기능, 도서관의 규모와 지역사회 내 도서관
시스템에서의 도서관별 역할, 기능과 역할에 따
른 적절한 운영 형태 등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에 대한 홍보가 절
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공약
조사 결과 가장 우려되는 내용은 '작은도서관'
에 대부분의 공약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었습
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을 보완하는 인
프라이지 절대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대체하는
인프라가 아니라는 걸 홍보해야 할 필요도 있
고, 작은도서관의 정확한 개념,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의 바람직한 관계와 기능 분담 등
에 대한 정립과 공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을 했습니다.

공약 내용 중 눈에 띄는 내용은 개인 차원의 공
약 보다는 정당 차원의 공약에서 느낄 수 있었
습니다. 사실 정당공천제도에 기반하다 보니 개
인 후보의 공약도 정당의 공약 및 정책의 밑그
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
당의 경우 설문지에 대한 회신은 없었지만 정당차
원에서 읍·면·동에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후보들의 공약이 읍·면·동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정당차원에서 공약을 회신해온 곳은 진보신당
과 국민참여당 두 곳이었습니다. 특히 진보신당
의 경우 2008년 총선조사 시에도 정당차원의
공약을 제시했던 곳이었는 데 다소 파격적인 공
공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비 지원을 자치단체
문화재정의 2%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제안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시설 확충
이나 캠페인성 독서운동 같은 공약들이 많았던
것에 비해 실제 운영에 대한 지원내용을 못박아
제시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선거에서 진보신
당의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 6.2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종료되었지만, 지방선거
공약 분석 결과의 활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2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 조사·분석을
통해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이와 관
련하여 앞으로 도서관계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우리가 도서관에 대한 행정이나 정치권의 관심을 요구하면서도, 이들에게 올바른 도서관에 대한 이해나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안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에는 너무도 소홀했었다는 자성이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작은도서관에의 비정규직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학교도서관 개방 등의 공약들을 보면서 이런 공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들이 도서관에 쏟는 관심이 오히려 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는 행정가나 정치가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들이 정책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데는 저희들의 몫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조사에 응답해 준 후보들 중 당선자에게는 그들이 낸 공약과 함께 해당 지역의 현황 등을 토대로 공약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 또 향후에는 선거공약의 분석 뿐 아니라 미리 좋은 도서관정책을 제안하는 일도 포함시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도서관문제를 정당이나 행정기구가 맞잡고 논의할 만한 도서관 분야의 카운터파트가 부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도 있고, 관종별 협의회도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역량을 키워오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똑같은 상황만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랍은 현재에도 이런 저런 문제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 도서관계가 내부의 목소리를 모으고 단결된 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기존 단체들 간에도 이해와 견해의 차이를 떠나 연대를 통해 힘을 합쳐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시의적절한 주제로 도서관계에 많은 정보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포럼 문화와 도서관'의 활동이 기대되는데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전체적인 활동의 방향은 도서관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여론을 조성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될 것이고, 현재 가장 가깝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번 조사결과를 가지고 지방자치, 정치, 공공도서관 정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과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달할 수 있는 포럼 공동 집필의 책을 한권 출판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조사였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포럼은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변함없이 활동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저희와 활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경진

'포럼 문화와 도서관' 사무국장
cultureandlibrary@gmail.com
<http://www.libraryforum.kr>